

창업지원제도가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s affect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the Potential Founder

임교순, 전인오
호서대학교 정보경영학과

Gyo-Sun Im(consulting88@naver.com), In-Oh Jeon(eric@hoseo.edu)

요약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창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창업지원 제도는 창업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창업지원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창업의지를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경영지원제도, 창업인프라지원제도의 5가지로 설정하고 독립변수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가설로 설정하여 실증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을 도출하여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의 측정과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된 자료의 통계처리에 의거하여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경로분석결과는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창업지원제도 | 창업의지 | 조세지원제도 | 금융지원제도 | 기술지원제도 |

Abstract

The government provides various support systems for small-medium companies who perform a vital role for hiring and manufacturing: focusing on activating of start-up.

Various governmental supports have been made and these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s have been contributed a certain point to start-up activation. Based on precedent study, this study has been setup the independent variables as five factors: mainly tax support system, financial support system, technology support system, management support system, self-employment infrastructure support program and empirically completed with the hypothesis how independent variable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is study, surveys which consist of measurements and questions allowing drawing variables and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empirical study methods that prove in accordance with statistics process of measured data were implemented.

To conclude,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showed in supplemental analysis performed through path analysis that tax support system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influence entrepreneurial intention

■ keyword : |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s | Entrepreneurial Intention | Tax Support System | Financial Support System | Technology Support System |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2018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IMF의 전망과 글로벌 경제의 다극화, 디지털 기술과 혁신, 융합, 창조가 만드는 새로운 변화는 이제 기업과 국가의 성장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은 기존시장을 대체하거나 확장시키는 역할과 창업률이 경제성장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OECD의 보고서처럼 창업활성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업의지가 중요하며, 잠재적 창업자인 학생이나 기업의 근로자로 하여금 창업의지를 고취하여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창업의지는 잠재적 창업가가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14][19]으로 개인의 창업 의사결정과 행동이 있으려면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20].

창업의지에 대한 초점도 시대가 변할수록 점차 확대되고 있어 초기에는 창업의지 결정요인을 개인특성요인, 심리특성요인, 환경요인 등에 두었으나 점차 동기부여, 기술력, 비전과 목표 등으로 확대되어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제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으며[7], 송준일(2009)은 창업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한 바 있다. 대다수 실패한 창업가의 상당수는 산업 환경측면에서 정부정책의 변화로 실패하였다고 한다[3].

창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경영지원제도, 창업인프라지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창업 중소기업이 성장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각종 창업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이끌려고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창업 중소기업이나 정부 또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창업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 및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창업지원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창업의지를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창업활성화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요인 중에서도 실질적인 효과 검증이 요구되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좀 더 중점적으로 세분화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조세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한다.

둘째, 금융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한다.

셋째, 기술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한다.

넷째, 경영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한다.

다섯째, 창업인프라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창업지원제도

창업을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정부도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주로 창업교육, 자금지원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하고 있다[15].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은 창업의지를 지닌 사람들로 하여금 창업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사회적 인식 및 창업정책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9].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완해야 할 정책과제로 소상공인 정책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자구노력, 수요자 맞춤형, 기업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산업별 기업생태계에 적합한 중기 지원정책 및 3불 해결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중기의 브랜드

화 전략 추진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12].

청년창업 성공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학력, 창업분야, 창업동기,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성공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창업성공확신에 조절변수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에 대해 조세지원, 금융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창업인프라지원 등 5가지 측면으로 분류한 연구와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조세지원, 금융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창업인프라지원제도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5].

1.1 조세지원제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책 중에서 조세지원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세액감면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조세분쟁은 법리나 원칙을 해석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더 결정적인 문제이므로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창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모호한 조세지원 범위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창업지원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걸맞는 실질적인 조세지원 제도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11].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지원정책 및 조세지원제도 등의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며,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창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창업 중소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창업투자사와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따른 빈번한 세법개정, 법률관련용어, 지

원 대상 자격에 대한 해석, 조세지원을 위한 복잡한 서류, 조세지원에 대한 홍보 부족 등 창업 중소기업에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조세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 유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2 금융지원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이 경영성과의 개선효과가 가장 높고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클수록 경영성과의 개선이 크게 향상됨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정책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11].

자금조달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인은 자금부족이다. 자금부족이 창업자로 하여금 주어진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나친 자금부족은 창업에 필요한 자원조달에 영향을 끼쳐 창업과정을 저해하고 사업체의 운영과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17].

창업자금 조달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융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무상지원인 창업지원 자금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아이템 사업화, 창업맞춤형 사업화 등이 있으며,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금(융자)에는 청년전용 창업자금, 창업기업 지원자금, 재창업자금등으로 제1금융권의 융자지원, 기술신용보증이나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보증 지원하고 있다. 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성공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4].

1.3 기술지원제도

정부에서는 연구 기자재 및 연구인력 등 초기창업기업이 보유하기 어려운 기술 인프라를 정부출연기관, 연구소, 대학 등을 활용하여 보완해 주고 있다. 창업을 유도하는 정부기술지원은 인프라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기업부담

금 비율이 오히려 기술개발 성과인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연구 자체로 그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5]. 또한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거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과제 수행시 원인을 파악하고 분리하여, 선의로 목표달성을 못한 기업은 실패하더라도 향후 정부과제 참여에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5].

중소기업 R&D사업의 상당부분도 실제로는 대기업 R&D인데 걸만 중소기업 몫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받기가 어려워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연구는 중소기업이 하고, 특허권은 대기업이 갖는 모순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10].

중소기업의 경우는 산학협력 활동실적에 따라 정부 R&D사업 참여에 가산점을 고려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13].

창업 중소기업은 시장 수요에 탄력적이고 신속적인 대처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기술인력, 정보수집 등의 문제로 기술지식 집약적인 경영구조를 갖기 어렵다.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은 R&D기획을 받은 우수과제가 사업화로 이어져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R&D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사업으로는 크게 4 가지로 분류하여 R&D 저변확대, 유망기술 분야 중점지원, 기술혁신 인프라 강화,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있다.

1.4 경영지원제도

경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예비창업자를 위해 창업 준비실 제도를 확대하여 사업 아이템 타당성 분석, 경영정보 제공, 기술경영교육 제공, 기술정보 제공 및 이전 예비시장조사, 정부의 지원제도 안내 등 기술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경쟁력 있는 창업을 유도할 수 있다[5].

창업자는 사업 초기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자원을 배

분하고 투입하여 재화의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을 담당한다. 이러한 창업자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경영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창업관련 교육은 청소년 비즈쿨과 창업아카데미, 시니어 창업스쿨등이 있으며, 정부 무상지원 자금에도 경영지원의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이 있다.

1.5 창업인프라지원제도

창업보육서비스에 따른 입주기업의 창업보육센터(BI) 의존도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프라지원, 네트워크 연계지원, 직접지원제도인 세 가지의 보육서비스 모두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입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직접 지원서비스의 경우 센터의 자원을 흡수하여 기업의 역량을 만들어가지만 네트워크 지원서비스는 기업의 센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신생기업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육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였다[1].

또한 창업 멘토의 역량이 멘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초기 창업자 성과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초기 창업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멘토가 적절한 행동방식과 가치관을 배양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멘토 또한 사업에 대한 건전한 생각과 행동을 지니는 멘토링이 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창업지원 중에서 창업과정 전반을 지도하는 멘토의 역량(사회적 판단 능력)과 멘토의 역할모델 기능이 초기 생존율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2].

정부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 조세, 기술, 경영지원외에도 창업에 필요한 공간, 창업절차의 간소화, 창업에 따르는 각종 규제의 완화, 창업정보의 제공, 창업지원인력의 양성 및 공급, 연구기자재 지원등과 같이 창업과정에 필요한 총체적인 창업기반인 창업인프라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보육센터에서 일정기간 동안 입주하게 하여 기술개발과 시제품제작을 위해 경영 및 기술지도, 정보제공, 자금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업을 촉

진시키고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려고 한다. 또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로 공장설립에 필요한 32개 법률, 63개 인·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 의제 처리하는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2. 창업의지

창업과정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창업의지는 새로이 갖게 될 직업의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업의지에 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14].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의 초점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초기에는 창업자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을 개인특성요인, 심리특성요인, 환경요인 등에 두었으나 점차 동기 부여, 기술력, 비전과 목표 등으로 확대되어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제도에 미치는 영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7].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창업에 대한 조세지원, 금융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창업인프라지원등 5가지 측면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5].

III. 연구 설계

1. 연구모형설계 및 가설의 설정

1.1 연구모형설계

본 연구에서는 창업생태계가 활발하게 조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요인을 찾고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지원제도인 조세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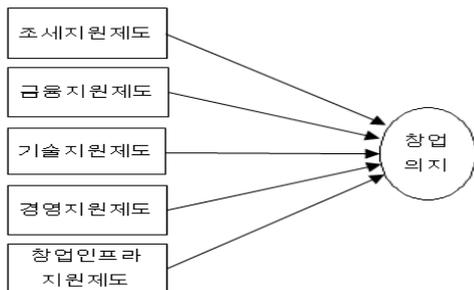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금융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경영지원제도, 창업인프라지원제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좀 더 창업활성화 기여 및 효율적인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 내용과 가설을 토대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구성하였다.

1.2 가설의 설정

연구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경영지원제도, 창업인프라지원제도를 창업에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조세지원제도는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 금융지원제도는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3. 기술지원제도는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4. 경영지원제도는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5. 창업인프라지원제도는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표본추출 방법 및 과정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설문기간은 2015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총 200부를 배포하여 16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답변 7부를 제외한 158부의 유효 설문지를 연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창업지원제도로는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를 한 유연호(2008), 윤방섭(2004), 송준일(2009)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와 중소기업지

원제도(2014)를 참고해서 정부지원정책을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경영지원제도, 창업인프라지원제도로 나누어 살펴보고 척도를 활용하고 구성하였다.

표 1. 창업지원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5가지로 분류		
조세 지원 제도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감면 제도가 창업에 도움이 된다 2.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인화가 창업에 도움이 된다 3.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조세 전문가 지원제도가 창업에 도움이 된다	이정람(2010), 송준일(2009), 송중호(2011), 윤방섭(2014)
금융 지원 제도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금(무상)이 창업에 도움이 된다 2. 정부의 정책목적(소상공인 지원자금, 창업지원지원자금, 재창업자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금(대출)이 창업에 도움이 된다 3.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재단)등을 통한 보증지원이 창업에 도움이 된다	송중호(2011), 송혁준 외(2006), 정성한 외(2001)
기술 지원 제도	1. 정부기관의 기술지도가 창업에 도움이 된다 2. 시제품 개발등 신기술사화화에 소요되는 자금(신제품 개발지원)을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3. 창업자가 신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 분석 지원금(R&D기획지원사업)이 창업에 도움이 된다	송준일(2009), 이민화 외(2013), 윤방섭(2014), 송중호(2011)
경영 지원 제도	1. 창업자에 대한 창업관련교육이 창업에 도움이 된다. 2. 창업기업의 컨설팅(사업타당성 검토, 창업절차대행, 경영기술지도등)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움이 된다. 3.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경영지도등이 창업에 도움이 된다.	송중호(2011), 송준일(2009)
창업 인프라 지원 제도	1. 창업에 필요한 공간제공(창업보육센터 등)이 창업에 도움이 된다. 2. 창업에 따른 각종 규제의 완화가 창업에 도움이 된다. 3. 창업지원인력의 양성 및 공급, 연구기자재 지원 등이 창업에 도움이 된다.	박재성 외(2009), 방혜민 외(2015), 송준일(2009)

표 2. 창업의지

잠재적 창업자가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창업의지		
창업 의지	1. 종업원으로 있기보다 새로운 기업을 창업	Crant(1996) 이지우(2000)
	2. 언젠가는 자신의 사업체를 가질 것.	
	3. 머지않아 내 사업체를 설립할 분명한 계획유무	
	4. 업체를 하나 소유, 운영할 뜻	
	5. 장래에 나 자신이 소유하는 업체를 하나 설립 또는 인수하여 운영할 것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모형과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기 전에 설문 자료에 대한 각 측정변수의 개념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그리고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후 측정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의 일환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개별 잠재요인별 평가와 전체 잠재요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 20.0과 AMOS 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하여 158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 하였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	퍼센트	항목				
			빈도	퍼센트			
성별	남	94	59.5	회사원	39	24.7	
	여	64	40.5		자영업	60	38.0
연령	20대	33	20.9	부모님의 직업	공무원	17	10.8
	30대	53	33.5		전문직	5	3.2
	40대	49	31.0		기타	37	23.4
	50대	21	13.3		음식업	16	10.1
	60대 이상	2	1.3		도소매업	14	8.9
	고졸	23	14.6		창업 하고자 하는 업종	IT·서비스	44
전문대졸	33	20.9	제조업	41		25.9	
대졸	75	47.5	기타	43		27.2	
대학원졸 이상	27	17.1					
결혼 유무	미혼	64	40.5	창업경험	창업한 경험 있다	45	28.5
	기혼	92	58.2		없다	78	49.4
	기타	2	1.3		직장에 다니적이 있다.	35	22.2
직업	회사원	61	38.6	업종에 대한 업무(사회생활) 경력	1년 미만	14	8.9
	자영업(기업가)	37	23.4		1년 이상-3년 미만	33	20.9
	공무원	3	1.9		3년 이상-5년 미만	22	13.9
	주부	15	9.5		5년 이상	40	25.3

항목	빈도	퍼센트	항목	빈도	퍼센트	
학생 기타	16	10.1	-10년 미만	49	31.0	
	26	16.5	10년 이상	158	100.0	
			합계			
창업 예정	이미 창업	44	27.8	조세지원	4	2.5
	6개월 이내	12	7.6	금융지원	78	49.4
	6개월 이상-12 개월 이내	7	4.4	기술지원	15	9.5
	12개월 이상	27	17.1	경영지원	29	18.4
	미정 (없다)	68	43.0	창업 인프라지원	32	20.3
창업 관련 정보를 주요 어떤 경로	인터넷	62	39.2	용기,결심	27	17.1
	창업 박람회	12	7.6	경제적 문제	94	59.5
	교육 프로그램	24	15.2	가족의 지지	4	2.5
	주변지인	55	34.8	정보의 부족	32	20.3
	기타	5	3.2	기타	1	.6
가족 월평균 소득	월 200 만 미만	13	8.2	있다	54	34.2
	월 200 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2	13.9	없다	104	65.8
	월 300 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8	24.1			
	월 400 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2	20.3			
	월 500 만원 이상	53	33.5			

2.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특정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복수로 설계된 설문 항목간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내적 일치도를 적용하고자 한다.

표 4. 신뢰도 분석 내용

변수	Cronbach Alpha
조세지원제도	.903
금융지원제도	.905
기술지원제도	.877
경영지원제도	.874
창업인프라지원제도	.865
창업의지	.926

Cronbach Alpha값이 0.60 이상이면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각 문항별 신뢰도가 모두 0.6이상으로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3. 요인분석

창업의지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고 저변에 내재된 개념인 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가 몇 개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보았다. 요인은 ± 0.5 보다 크면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주성분 분석으로 창업지원제도 요인분석으로는 조세지원제도 3문항, 금융지원제도 3문항, 기술지원 3문항, 경영지원제도 3문항, 인프라지원제도 3문항이 추출되었다.

표 5. 창업지원제도 요인분석

문항	추출	성분					
		요인1	요인2	요인5	요인4	요인5	
조세 지원	세액감면	.830	.792	.350	.213	.128	.136
	세액인하	.879	.862	.190	.195	.094	.228
	조세전문가 지원	.824	.818	.265	.121	.102	.242
금융 지원	창업지원금 (무상)	.850	.241	.805	.232	.205	.220
	운영·정책자 금(대출)	.890	.298	.818	.261	.117	.222
	보증지원	.803	.352	.754	.130	.061	.302
기술 지원	기술지도지원	.793	.256	.078	.711	.165	.299
	신제품 제작비 지원	.914	.357	.323	.760	.215	.241
	지원금(R&D 기획지원)	.905	.232	.322	.757	.262	.325
경영 지원	창업교육	.801	.019	.136	-.002	.835	.293
	기술지도	.820	.133	.085	.213	.858	.117
	경영지도	.825	.129	.103	.168	.865	.146
창업 인프라 지원	공간제공	.742	.167	.404	.176	.299	.656
	규제완화	.823	.313	.236	.194	.223	.763
	인력지원	.820	.247	.229	.232	.262	.764

주성분 분석으로 창업의지의 요인분석결과 창업의지는 4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표 6. 창업의지 요인분석

문항		추출	성분
창업의지	창업의지	.763	.874
	창업준비	.801	.895
	창업계획	.661	.813
	창업운영	.832	.912

4. 상관관계분석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경영지원제도, 창업인프라지원제도와 창업의지와 변수의 관계성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조세지원제도와 창업의지의 상관관계는 .176으로, 금융지원제도와 창업의지의 상관관계는 .275으로, 기술지원제도와 창업의지의 상관관계는 .336으로, 경영지원제도와 창업의지의 상관관계는 .253으로, 창업인프라 지원제도와 창업의지의 상관관계는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상관관계 분석

구분	1	2	3	4	5
조세지원제도	1				
금융지원제도	.660 (**)	1			
기술지원제도	.624 (**)	.684 (**)	1		
경영지원제도	.313 (**)	.360 (**)	.487 (**)	1	
창업인프라지원	.601 (**)	.682 (**)	.685 (**)	.549 (**)	1
창업의지	.176 (*)	.275 (**)	.336 (**)	.253 (**)	.305 (**)

5. 경로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념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바, 앞서 분석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마친 후 측정항목들에 대하여 연구 단위별로 측정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로 항목 구성의 최적상태를 도출하기 위한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초부합치인 χ^2 통계량 ($p>0.05$ 바람직함), 비교부합지수 GFI (Good ness of Fit Index : 0.9 이상 적합), 조정부합치인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0.9 이상 적합), 원 소한 평균차이인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 0.05 이하 적합), 표준부합지수인 NFI(Normed Fit Index : 0.9 이상 적합), CFI(Comparative Fit Index : 0.9 이상 적합)를 이용하였다. 한편 표본의 χ^2 값은 검증 력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지수이기 때문에 표본의 크 기가 클 경우 χ^2 값을 기준도 고려해야하지만 다른 적합 도 지수를 더욱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는 일부 낮게 나 타났으나 부합지수에 근사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적합 하게 평가하였다.

분석결과는 Chi-square=582.737, Degrees of freedom =28, Probability level= .000 으로 나타났다.

표 8. 모형의 적합도

RMR, GFI	RMR	GFI	AGFI	PGFI
Default model	.054	.845	.808	.877
RMSEA	RMSEA	LO 90	HI 90	PCLOSE
Default model	.355	.330	.381	.000

본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경로분석 결과

			Estimate	S.E.	C.R.	P
창업의지	←	조세지원제도	.230	.051	4.541	.000
창업의지	←	금융지원제도	.139	.049	2.833	.005
창업의지	←	기술지원제도	.052	.050	1.036	.300
창업의지	←	경영지원제도	.038	.061	.618	.537
창업의지	←	창업인프라 지원제도	.024	.056	.428	.669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지원제도, 경영지원제 도, 창업인프라지원제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각 요인에 대한 표준화계수(베타값)로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경로분석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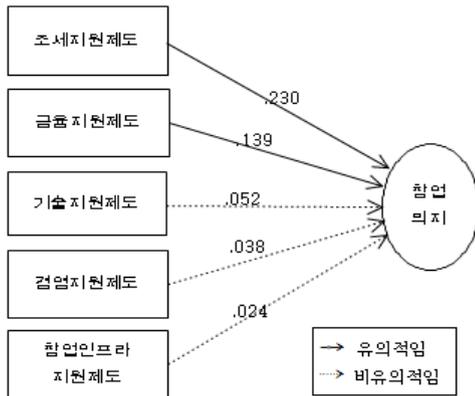


그림 2. 경로분석 가설검증결과

V. 결론

1. 결론

창업생태계가 활발하게 조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업의지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잠재적인 창업가 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가설 H1. 송중호(2011), 윤방섭(2004)의 연구인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조세지원제도는 일치하였다.

가설 H2. 금융(자금)지원제도는 송중호(2011), 송혁준(2006), 정성한(2001)의 선행연구와 같이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일치하였다.

가설 H3. 송중호(2011), 윤방섭(2004)의 연구에서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다르게 기술지원제도는 일치하지 않았다.

가설 H4. 송준일(2009), 송중호(2011), 윤방섭(2004)의 연구는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영지원 제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가설 H5. 박재성(2009), 방혜민(2015)의 연구와 달리 창업인프라지원 제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지원제도에 있어서는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가 지원되어야 창업의지가 높아진다고 결과가 도출되었다.

2. 토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조세지원제도가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만, 정부정책 목적에 따라 빈번하게 바뀌는 세법개정 변화, 창업자에게 익숙하지 아니한 법률관련용어의 어려움, 지원 대상 자격에 대한 해석, 조세 지원의 복잡성, 조세지원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이 창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좀 더 빠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융지원제도 또한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지원 이후에 사후 관리부실과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있으므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금융지원제도가 기관별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매년 정책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자금의 지원중단이나 추가적인 자금지원제도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각 기관의 중복성을 피하고, 오히려 지원 자금을 하나로 묶어 서바이벌 형태로 창업자금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기술지원 제도에 대한 결과를 역으로 해석하면 정부의 기술 지원에 있어 창업자에게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산업현장의 기술자나 연구원을 활용하여 기술을 지원하면 경험이 부족한 창업자의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 형식적인 증

빙 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업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술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이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개발되기 어려운 점과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함으로써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경영지원 제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점은 창업자의 전문경영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인식의 부족으로 보이며, 짧은 기간 내에 교육을 시행하려다보니 나타난 부작용으로 해석된다.

즉, 창업관련교육이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창업에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하며, 단기간 내에 진행되는 교육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개편 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일회성 성격의 컨설팅과 상담을 지양하고 문서작성에 치우친 컨설팅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창업인프라 지원에 대한 결과를 재해석해 보면 홍보가 아직도 미비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창업인프라지원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단계별로 보육기간에 제한을 두어 창업자가 시장 경쟁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는데 일조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보육기관의 평가항목을 개선해서 좀 더 보육기관의 역할인 초기창업을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앞서 시사한 결론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지원정책중 하나인 조세지원제도는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금융지원제도로는 각 기관의 중복을 피하고 하나로 자금을 묶어서 서바이벌 형태로 창업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지원제도의 경우 창업자에게 맞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산업현장기술자나 연구원들로 뒷받침 하고, 개발시기 또한 심의를 거쳐 창업 아이템 및 창업단계, 기술진척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경영지원제도는 창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인식을 고취하도록, 실전 창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창업인프라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확대 및 체

계적이고 실질적인 창업인프라지원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보육기관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육기관 평가항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개선 및 보완하여 창업지원제도에 반영한다면 창업의지가 고취됨으로써 실질적인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미치는 창업요인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 중에서도 실질적인 효과 검증이 요구되는 정부의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경영지원제도, 창업인프라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이 연구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제창업 및 경영성과를 다루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점이다. 국내 창업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가 충분치 않은 점을 보완하고 해외 창업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를 비교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깊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박재성, 리철, 김재전, “창업보육서비스에 따른 입주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의존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1권, 제2호, pp.105-118, 2009.
- [2] 방혜민, 전인오, “멘토의 역량과 멘토링 기능이 창업의 초기성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pp.444-454, 2015(5).
- [3] 송경숙, “소상공인 경영자의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과 창업실패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 pp.393-407, 2015.
- [4] 송중호, *청년창업 성공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례 중심으로*, 호서대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8, 2011.
- [5] 송준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현*

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0-15, 2009.

[6] 송혁준, 김이배, 오용락, “중소기업 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이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제28권, 제4호, pp.65-79, 2006.

[7] 엄태성, *Holland의 직업성격유형과 직업가치가 의식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5-8, 2009.

[8] 유연호,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44-45, 2008.

[9] 윤방섭, “창업의지의 결정요인 : 개인특성 및 환경 요인,” 산학경영연구, 제17권, 제2호, pp.89-110, 2004.

[10] 이민화, 김영지, “창조경제시대의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연구, 제35권, 제3호, pp.294-324, 2013.

[11] 이정란,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pp.338-357, 2010.

[12] 이종욱,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중소기업연구, 제35권, 제3호, pp.269-296, 2013.

[13] 이중만, 임승호, 황규희, 이진석, “정보통신분야 산학 협력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 IT멘토링 사례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8호, pp.342-351, 2011.

[14] 이지우,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제22권, 제1호, pp.121-146, 2000.

[15] 전인오, “창업지원이 청년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1호, pp.103-114, 2012.

[16] 정대용, “창업과 사회문화 요인간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 제5권, 제3호, pp.59-85, 1999.

[17] 정성환, 김해룡,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4권, 제2호, pp.3-29, 2001.

[18]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지원제도*, 2014.

[19] J. M. Crant,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제34권, 제3호, pp.43-49, 1996.

[20] N. F. Kreuger and A. L. Carsru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Vol.5, No.3, pp.315-330, 1993.

저 자 소 개

임 교 순(Gyo-Sun Im)

정회원



- 2014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 2014년 2월 : 호서대학교 창업컨설팅학과 석사졸업
- 2012년8월 ~ 현재 : (주)이산하이텍 대표이사, 경영지도사

- 1985년 2월 ~ 2012년 8월 : 삼성화재보험, 한국투자증권, (주)수산중공업 외 근무

<관심분야> : 중소기업창업, 벤처기업창업, 창업교육, 창업관련 컨설팅

전 인 오(In-Oh Jeon)

중신회원



- 2015년 10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원장
- 201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창업선도대학 창업지원단 단장
- 2014년 2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시니어특화창업보육센터 센터장

- 2011년 8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창조융합산업연구소 소장
- 2005년 5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부원장

<관심분야> : MICE산업(전시/컨벤션산업), 중소기업창업, 소프트웨어공학